

소기업 기술고도화 맞춤형 지원

도-경진원, 혁신역량 강화 참여기업 14일까지 모집

혁신기반 공정 개선·품질인증 획득 등으로 구분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현장 애로 해소와 기술고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일 경진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조공정 시스템 개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가치 평가와 기술 및 품질의 고도화 달성을 위한 인증 획득 등 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해결과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기업이 처한 문제해결을 위해 4개의 지원 분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시험분석 ▲품질인증획득으로 구분돼 있다. 혁신기반 공정개선은 불량률 감소 및 품질개선, 생산비용 절감 등 기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4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공인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거래,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 등 자구적 자금조달을 목표로 10개 기업에 기업당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험분석과 품질인증획득은 제품의 성능 및 성분 등에 공인기관에 분석·인증 받음으로써 기술 및 품질 고도화 달성을 목표로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138개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292개 기업을 포함해 그동안 도내 2,000여 소기업을 지원해 왔고, 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업과 매출 및 고용증가 등 의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보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R&D 연계 등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국내 유수의 기술평가기관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참여기업에 최신 연구개발기술이 융합된 제조 및 생산공정시스템 구축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진행하며,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공인인증 획득도 지원한다.

특히 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 획득이 증가하는 추세와 실질적 지원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추가해 중소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도 경제와 경기반등의 열쇠는 결국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이라며 "올해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제조업 분야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의 참여 요건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상시근로자는 5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알림 및 소식에서 사업안내 및 참여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063)711-205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도내 여성 기업가 전성시대

전북여성새일센터, 창업 상설매장 운영자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예비(초기)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센터 내 창업 상설매장(프리마켓) 운영자를 모집한다.

창업 상설매장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 로비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판매 공간으로, 예비 여성 창업자들에게 판매의 장을 지원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상설매장 운영자 모집은 2월 말 입주 예정으로 전라북도내 거주하고 수공예 제품을 창작하는 예비 및 3년 미만 초기 여성 창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21일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womn@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선정은 열정적인 참여의지와 창의적인 품목, 이야기가 있는 수공예품, 구매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적절한 가격 등 선정기준에 따라 확정해 오는 24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센터는 상설매장 운영자들의 성공창업을 위해 창업 전문가 자문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초기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여성 기업가로의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 창업상



담사를 통한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상설매장은 창업에 준비하는 예비여성 창업자들에게 소품과 창업 준비 품목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소비자 구매욕구, 반응 등 시장분석을 통해서 성공창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는 구직 욕구를 반영한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 창업자 육성을 위한 온라인쇼핑몰 & 라이브커머스 창업 교육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정부지원 사업 설명회(3월중), 여성창업아카데미(9월중), 창업캠프(10월중), 제3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8월~10월중),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6월~)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8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신지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매출액 5,000억원 달성을 결의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마케팅 매출액 5000억 달성 결의

전북도-전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8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신지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매출액 5,000억원 달성을 결의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농협은 공선출하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초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전북농협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선 농산물 수출 2,200만 불 달성을 위해 주력·육성·신규 품목을 선정해 수출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판매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통합마케팅 매출액 5천억 원 달성을 이루자"며 "전북농협과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최근 어려운 가운데 가장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희망을 심어주는 할계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희 기자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성공 분양 역량 집중”

김옥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 상임이사·본부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8일 김옥철 개발사업처장을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옥철 상임이사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삼성물산, 한화건설을 거쳐 2018년 공사에 입사했다.



신재생에너지처장, 안전기술처장, 개발사업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새만금 육상대량개발 사업의 구도를 만들고 민간합작 SFC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계기로 신설된 안전기술처를 맡아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 현장에 안전우선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김옥철 신임 상임이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분양과 후속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대희 기자

올 첫 ESG 채권 발행

잔량 총 6000억원 돌파

전북은행, 지난해 5000억

이어 지난 4월 1000억 추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올해 첫 ESG채권을 발행해 잔량 총 6,000억원을 돌파했다.

8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방은행 최초로 ESG인중 등급 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 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TB1' 등급을 인증 받아 ESG채권 발행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ESG채권 5,000억 원 발행에 이어 지난 4월 1,000억 원원을 추가 발행했다. 이처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된 ESG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등에 투자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 ESG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제조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금융서비스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ESG채권 발행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중기청, 중기 판로·마케팅 지원

올해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마케팅 사업은 우수·유망 제품의 초기 민간시장진출부터 고객관리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흡수평가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고, A/S 서비스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교환, 수리 등을 지원하는 공동 A/S 상담을 운영해왔다.

또한 작년에는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원 등을 제공하는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인건공향 여객터미널에 개소해, 국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와 홍보, 시장 조사를 추진하고 내수 판로 중심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올해 마케팅 사업은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 지원내용 확대 및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해 자사몰(D2C) 구축,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기업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사몰의 경우 온라인 구매 수요가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 감소 고객관리와 구매이력·방문경로 등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 전략이 선행돼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민간 전문기업의 사전컨설팅과 교육,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사몰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소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판매 성과 제고를 위한 동영상 제작, 검색광고 등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마케팅을 비우쳐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희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 전북농협, 방역현장 상황 점검

남원축협 거점소독시설 찾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최근 3일간 부안군 부안읍 정읍시 영원면 등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8일 남원축협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소독시설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도내에서 7회에 걸쳐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북 관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생식회 224회를 지원했으며, 초등 대응을 위해 농협 방역 비축기지 6개소에 생식회 6,455포, 소독약 400병, 방역복 338박스를 비축중이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추운 날씨에도 방역활동으로 고생하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북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협의 방역자원을 총



8일 남원축협 거점소독시설을 찾은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과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 등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동원해 AI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작년 10월부터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7

개 축협 46개 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농가와 칠새 도래지 등에 연간 12만 회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